



고불총림 방장 지선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삼귀의를 하고 있다.

### 장성 상무대 초군장교 환영법회

#### 고불총림 방장 지선 스님 법문

“그동안 불교에 대해 아는 것이아닌 교과서를 통해 배운 게 전부였습니다. 오늘 법회를 통해 불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조계종 균중특별교구 장성 군법당인 상무대 무가사(군법사 해직)는 3월 13일 ‘초군장교 입교 환영대법회’를 열었다.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지선 스님, 광주불교연합회장 영광 스님, 포병학교장 이재형 소장, 초군장교 불자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날 법회는 법요식과 법문, 점심공양, 선물증정 등이 진행됐다.

지선 스님을 법회에서 “불성은 모든 만물의 생명의 본질이다. 불교는 모든 생명을 부처라고 한다”며 “불성을 구제

적으로 말하면 자유·평등·평화·행복이라고 하며 인류가 이루어야 할 가치”라고 설명했다.

스님은 이어 “초군장교를 포함 모든 불교인들은 불성을 찾기 위해 수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장교로 임관하는 불자들이야말로 모든 이들의 귀감이 되어 자신의 수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설법했다.

행사는 법회 외에도 광주 무가사 자비봉사단의 봉사와 운전 스님의 짜장면 공양, 다양한 위문품 전달 등이 이어졌다.

장성 상무대는 전체 5000명 규모의 초군장교 교육부대다. 보병, 포병, 공병, 기갑, 화생방 등 각 병과별로 4개월간의 교육을 진행하며, 야전부대 배치 시 실질 전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광주불교연합회, 불교사진가 양성 나서

### 사진문화기획단 5월까지 집중 교육

사찰의 사진을 담은 전문가를 양성하는 강좌가 열려 불교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영광, 증심사 주지)는 지난 3월 9일부터 사진문화기획단(단장 무등, 천통사 주지)을 결성하고 사진 전문강좌를 개설했다.

전체 15주간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디지털 사진기의 기본 이해, 카메라조작, 노출·속도·감도 이해, 구도와 프레임 등 사진 찍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전문가 강의를 진행한다. 또한 각 사찰의 사진과 불교행사 사진에 대한 실기, 불교문화에 대한 전반적 내용도 더해져 불교사진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총 23명이 참여한 이 강좌는 광주불교회관에서 5월까지 진행되며, 광주지역 불교행사에 대한 공동의 사진 촬영을 실시한다.

무등 스님은 “불교문화의 아름다운 모습을 사진에 담으려고 사진문화기획단을 결성했다. 특히 각 사찰에서 시각자료를 남기지 않아 사찰의 소중한 역사가 소실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예방하는 차

원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사진문화기획단을 통해 각 사찰과 광주불교의 소중한 모습들을 담아내고, 이를 통해 다른 지역에 광주불교를 알리는 역할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강사진으로는 광주사진가협회장인 선종백 교수와 윤혜숙 작가가 참여해 이론과 실기를 전담한다. 사진문화기획단은

#### 15주간 사진전문강좌 실시

#### 지역 불교행사 사진에 담아

#### 연간 활동하며 홍보 담당

#### “광주불교 알리는 포교사들”

각 사찰과 단체를 대표하거나 실행활동을 하고 있는 신도들로 구성돼 있다.

강좌에 참여한 강민협 씨(한마음선원 광주지원 신도)는 “그동안 사찰 행사사진을 많이 촬영했지만 전문적인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며 “강좌에 참여해보니 정말 좋았다. 앞으로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광주불교연합회가 실시하고 있는 불교사진강좌 교육 모습.

광주불교연합회는 부설기구로 사진문화기획단(사진영상특별위원회)을 구성해 지난 1월 각 사찰별로 홍보를 맡겨 참여자를 모집했다. 이후 2월 예비모임을 갖고 3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강좌는 매주 화요일 2시간(이론과 실기 각 1시간) 진행하며, 매월 1회 정기 촬영대회가 연말까지 이어진다.

사진문화기획단은 각 사찰 사진 촬영을 비롯해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및 전통등 전시회 △불교행사에 참여한 스

님 및 신도들의 행복한 모습 △광주불교를 알릴 수 있는 사진 등을 찍고, 각종 홈페이지 및 블로그, SNS 등에 올려 홍보를 담당한다.

이를 바탕으로 추후 각 사찰의 사진전과 빛고을관동회 사진전, 광주불교 사진 전시회, 광주불교의 5년, 10년 사진전, 화보집 발간, 2017년도 사진전 공모와 송년행사 등에 참여하고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화엄불교대학 총동문회장 이취임식

#### 3월 13일, 신임회장에 안준아 불자

지난 27년간 5천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전주 화엄불교대학 총동문회 13대 회장에 안준아 불자가 취임했다.

화엄불교대학 총동문회는 3월 13일 전북불교회관 4층 큰법당에서 이근재 전임회장 이임식과 안준아 신임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이취임식에는 화엄불교대학 학장 성우 스님, 금선암 주지 덕산 스님, 김백호 전북불교신도회장, 이정상 포교사단 전북지역연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해 13대 집행부의 출범을 축하했다.

안준아 신임회장은 “화엄불교대학의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 사부대중의 지혜와 원력을 바탕으로 숭신수범하는 회장이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안 회장은 이어 “기수별 동문회를 활성화하고 화엄불교대학이 전국제일의 불교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은 축사를 통해 “총동문회를 이끌어갈 안준아 회장의 취임을 축하한다”며 “총동문회장은



사진 왼쪽부터 이근재 전임회장, 성우 스님, 안준아 신임회장

투철한 봉사정신과 사리 깊고 분별 있는 사고로 주인의식을 갖고 소임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준아 회장은 화엄불교대학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전임 집행부에 감사인사를 전하며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어 부회장에 정창은·김기은·하유호·엄현숙 불자, 사무총장에 이승규 불자, 사무국장에 강대후 불자, 재무국장에 안윤주 불자를 선임했다.

한편 화엄불교대학은 이에 앞서 12일 불교대학 28기 70명, 화엄학림원 23기 35명의 입학식을 봉행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금산사 혁신도시 포교당 ‘수현사’ 기공

### 연건평 4800㎡ 규모

전주시 만성동과 완주군 이서면 일대에 조성되고 있는 전주 혁신도시 포교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현사가 건립된다.

금산사(주지 성우)는 3월 13일 완주군 이서면 수현사 건립부지 현장에서 조실 월주 스님을 비롯한 분말사 스님들과 각 신행단체장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수현사 기공식을 봉행했다.

이 자리에서 월주 스님은 “전주 혁신도시 전법도량 수현사는 마음을 정화시키고, 도덕성을 지키며 평화롭게 어려운 이들을 위해 배풀면서 살 수 있도록 지도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수현사는 연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완공되면 전주 혁신도시 신도심 포교 허브역할을 맡게 되며 불자들의 포교와 전법, 신행공간으로 활용된다. 전주 지역에 도심포교당이 많지 않아 그동안 신행과 포교에 어려움을 겪어온 불자들이 수현사에서 보다 쉽게 불심을 다질 수 있을 전망이다.



금산사 포교당 ‘수현사’ 기공식에서 금산사 조실 월주 스님을 비롯한 분말사 스님들이 사삼을 하고 있다.

문수보살의 지혜를 닦고 보현보살의 행원을 실천한다는 의미의 금산사 전법도량 수현사는 전북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 647번지 혁신도시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다. 2006㎡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건평 4808㎡ 규모로 건립되며, 5층은 추후 전통한옥양식 대웅전과 종각이 세워질 예정이다.

총 공사비는 부지매입대금 약 11억원, 공사비 약 3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

다. 수현사에는 유치원, 식당, 강의실, 생활관, 대법당, 소법당, 사무실, 방송국이 들어선다.

990여만㎡의 부지에 조성되고 있는 전북 혁신도시는 현재 한국전기안전공사, 농촌진흥청과 국립농업과학원 등 12개 공공기관이 이미 이전을 마쳤거나 이전을 준비 중이며 이들 기관의 직원 수만 4700여 명에 달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호남불교계, 자비의 쌀 후원 잇달아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시각)는 3월 16일 ‘제9회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활동가 자비의 쌀 나누기’를 진행했다. 행사에서 광주전남지역 사찰과 후원자로부터 지원받은 자비의 쌀 1600kg을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40개의 시민단체 활동가와 불교단체 활동가들에게 전달했다.

진안 마이산 탐사(주지 진성)는 17일 지역의 홀몸 어르신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자비의 쌀 1000kg을 진안군 자원봉사센터에 전달했다. 이날 마이산 탐사에서 전달한 자비의 쌀은 진안읍 유유상 씨 외 11개 읍면 50가구에 전달됐다. 탐사는 지난해부터 매년 봄과 가을 2차례에 걸쳐 진안군 자원봉사센터에서 선정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자비의 쌀을 전달해오고 있다.


진안 쌍봉사(주지 보경)도 이에 앞서 12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자비의 쌀 600kg을 전달했다. 쌍봉사에서 전달한 자비의 쌀은 30가구의 어려운 이웃들에 전달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조동제 전북지사장



## 종교법인 국제 선 불교 조계종

### 중생구제 인간방생의 큰 뜻을 함께하실 중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중생구제 인간방생으로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12인연법의 가르침속에서 씩없이 활동하는 종단!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큰 종단, 큰 절, 각 종단을 이끄는 스님들이 불교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조그마한 암자나 토굴, 인법당을 운영하는 스님, 포교당을 운영하는 이름 없는 스님일지라도 포교일선에서 그늘진 곳,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서 땀 흘리는 불제자, 중생구제, 인간 방생을 몸소 실천하는 스님들, 제가 법사, 불자님들 또한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입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를 사찰 및 스님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목탁 대승정과 뜻을 함께할 사찰과 암자, 포교당 주지스님과 원장이라면 누구나 종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교법인 : 국제 선 불교 조계종**  
**AGGA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GALAJA**  
대승정 목탁

대표 전화번호 02)733-5665, 010-3618-6061 / 기획실 010-4467-9600